

하안거 해제법어

해제철도 결제삼아 더욱 정진하라

법전 스님(조계종 종정·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고인들은 움직일 때나 머무를 때나 있을 때나 누울 때나 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한 마디 했다 하면 곧바로 귀결처를 알아차린 일화가 많습니다.

한 철 제대로 정진을 했다면 가는 산천마다 선지식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한 두 마디 아는 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치 못한 사람은 눈 밝은 사람을 눈 앞에서 바로 만나더라도 거광은 고사하고 그 선지식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무성한 나무와 마른나무를 보고서 '어떤 것이 옳으나'고 물으니 한 남자는 '무성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인(古人)은 '숙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성한 나무와 마른나무를 보고서 '어떤 것이 옳으나'고 물으니 한 남자는 '말라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인은 '숙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공부처요

보이는 경계가 거량처

'마른 것은 제대로 마르게 두고 무성한 것은 제대로 무성하게 두어야 한다'고 한 사미가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인은 '아이를 예뻐하다가 추해지는 줄 모르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모두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승이 해제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고인의 답변에 과연 옳고 그른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고인의 답변에 과연 옳고 그른 것이 있습니까? 한 철 동안 정진하여 안목을 갖춘 남자가 있다면 한번 제대로 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낙상황업작금전(落霜黃葉作金錢)
치해아제견회환(蟻駭兒啼見喜歡)
착득현양구도호(捉得現量俱道好)
부지수시신방관(不知誰是師傍觀)
서리맞은 단풍잎을 돈이라 하니
어린아기 울음 그치고 기뻐하였네.
가져다가 엄마에게 보이니 모두가 좋다고 말하나
결의 사람 비웃음 받을 이는 누구이던가?

월하 스님(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천진자성(天真自性)은 본래 미혹할 것도 깨칠 것도 없으며, 온 시방의 허공계가 바로 나의 한마음의 본체니라. 허공이란 본래부터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번뇌라 할 것도 인위적인 작위도 없으며, 미혹할 것도 깨칠 것도 없다. 한줄기 맑은 흐름이 자성의 태어남이 없는 진리이니 어찌 머뭇거리 헤아리고 따질 수 있겠는가. 참 부처는 입이 없어 설법할 줄 모르고 참 들음은 귀가 없으니 뉘서서 들을 수 있겠느냐. 수고하였다. 편히 쉬라.

오늘 재미년 하안거 해제일을 맞이하여 시화대중에게 고한 다.

남전화상에게 어느 날 한 중이 물기를 '사람에게 설하지 못

도처에 산해진미가 가득

하는 법이 있습니까?'하니 남전화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중이 다시 물기를 '어떤 것이 사람에게 설하지 못하는 법입니까?'하였다. 그러자 남전화상이 대답하기를 '심(心)도 아니고 불(佛)도 아니고 물(物)도 아니다.'고 하였다.

우리 선가에서는 마음이 곧 불이라고 내세우는데 왜 마음도 아니고 불도 아니며 덧붙여 물도 아니라고 하였는가?

이에 대해 훗날 무문스님이 평하기를 '낭당불소(朗當不肖)'라 하여 '솔대없는 비유를 남발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 또한 잘못됐다.

그릇됨을 일격에 바로 본 이는 부디 마음도 놓아버리고 불도 놓아버리며 물도 놓아버린 채 오늘 해제일을 맞아 비로소 진중하라. 도처에 산해진미가 가득하구나. 돌(罽)!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가 이르면

은 10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다.

양 신도회 임원 4인씩 총 8명으로 구성된 통합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백창기 선진규)는 통합 신도회의 명칭과 시기, 조직 등 별다른 이견 없이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양 신도회의 통합은 종현종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9월로 예정된 조계종 정기 중앙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합추진위의 합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총회의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추진위는 지난 5월 구성된 이후 그동안 세 차례의 회의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 신도회의 방향과 절차, 조직 통폐합 등을 논의해 왔으며, 현재까지 통합추진위는 명칭과 시기, 조직 통폐합 절차, 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낸 상태다.

명칭은 지난 3월 합의한 대로 '전국신도회'를 그대로 사용하

원담 스님(덕속총림 수덕사 방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닌 줄 알면 곧 여래를 보리라"하시고, 법안 스님은 "만일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닌 줄 보면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하였는데, 이에 대해 옛 스님이 말하기를 "형상이 형상 아닌 줄 안다면 안목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에는 두개의 함정이 있으니 누군가 찾아내면 그는 법을 고를 줄 아는 안목을 가졌다 하리라" 하시고 "앞 쪽은 천 길의 목은 개울이요 뒷 쪽은 만 길의 높은 산"이라 했는데 대중들은 알겠는가!

모른다면 일러주리라. 눈이 온 뒤에 소나무의 짙게 알 수 있고, 새가 허공을 날으나 그 흔적이 없다 하리라.

그러나 상이 있고 또한 구함이 있겠는가? 백옥에 티가 없거늘 문채를 새기려다 본 바탕을 다치게 하

마음 여여하면 경계도 여여

지 말라! 유(有)에 집착하고 무(無)에 집착하는 것은 모두 사된 견해이니 유와 무에 집착하지 않아야 일미가 항상 나타나니라.

육조 스님은 "모든 상이 허망한 것이니, 만일 일체 모든 상이 허망해서 실(實)이 아님을 깨달으면 곧 여래의 무상한 그 진리를 본다"하였는데 마음이 여여하면 경계도 여여하다.

그러나 이 여여를 여여라 하면 여여가 아니라 벌써 변해 버린 말이니 이 여여는 곧 우주의 근본이며 일체만물이 이 여여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니라.

아부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겠는가?"하였는데 일러보라! 대중들은 무어라 입을 열겠는가! 방하착(放下)하라, 방하착하라.

지허 스님(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옛그제 결제일에 모여 생사도 묻지 않고 전후좌우도 묻지 않고 오로지 조사관(祖師關)만을 꿰뚫어야겠다 했더니 어느새 해제날이 되었습니까.

이 때 무심코 하늘을 보니 가없는 허공에 둥근 달이 홀로 떠서 지곳이 웃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달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도반이요 나의 스승이니 반갑기 그지없기에 한없는 도정(道情)을 보냅니다. 이 때에 하염없는 달을 보고 한 곡조 읊는다면 이가 바로 철우(鐵牛)의 만고운곡(萬古韻曲)이요, 언전소식(言詮消息)입니다.

어떤 중이 조주(趙州) 선사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선사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중이 다시 물기를

빈산에 둥근달만 외로이...

"있다면 어째서 가족 포대 속에 들어 있습니까?" 선사가 대답하기를 "그가 알면서 짐짓 범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다시 또 다른 중이 조주 스님에게 물기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선사가 대답하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중이 다시 물기를 '일체 생명이 모두 다 불성이 있다 했거늘 개는 어째서 없다 하십니까?' 하니, 선사가 말하되 '그에게 업식(業識)이 있기 때문이니라' 하였습니다.

남자들이여! 이 병남(病衲)이 조주 스님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다고 해도 맞지 아니하고 개에게 불성이 없다 해도 맞지 아니하며 혹 있다거나 혹 없다고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한 마디 이르십시오.

조계종 통합신도회 10월 발족

통추위, 22일 최종 의견 수렴

되, 중앙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앙신도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직 통폐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 신도회의 지역조직 현황 파악을 거쳐 통폐합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22일 '통합신도회의 조직체계 및 발전 전략'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합신도회의 회장을 누가 맡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신도회는 선진규 전국신도회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백창기 중앙신도회 회장을 통합신

도회 회장으로 추대하지는 않을 내놓았으나, 전국신도회는 양 신도회 회장을 공동회장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전국신도회의 법인 승계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다. '법인을 승계할 경우 통합을 승인할 수 없다'는 중앙총회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신도회는 "전국신도회의 역사"를 '중앙신도회의 조직과 사업'을 통해 구현하는 조직통합으로부터 명실상부하게 자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한국불교 신도회의 구상체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힌 통합 선언문과 '하나의 신도회' 원칙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최연 통합추진위원(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양 신도회가 10월 통합대의원총회를 통해 완전통합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로 원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및 시식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백중천도시식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영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예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백중기도 및 회향안내

우리절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불교의 천도명절인 우란분절 백중기도기간을 맞아 불자님들의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위하여 칠칠제를 봉행하며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 회향법회가 봉행됩니다.

제 2차 천심삼일기도 회향

지난 2000년 11월 5일부터 시작한 제2차 천심삼일기도가 오는 8월31일 오전10시 조계총림 송광사 울림장이며 부산의 두송종합사회복지관과 두송자활후생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계신 부산 관음사 주지 지현대화상을 모시고 마침내 회향을 맞게 됩니다. 보다 아름다운 회향이 되도록 불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

-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